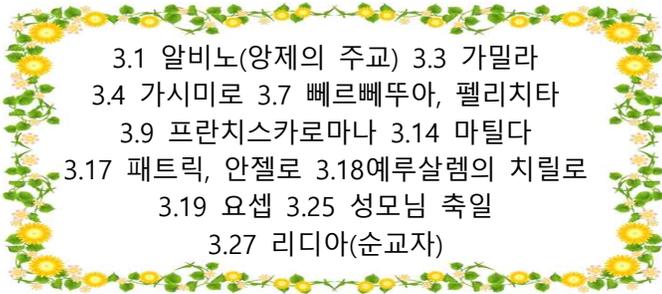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방문교리(환자/어르신)	*신청: Sr. 마리루시

### 3월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 세금보고 서류 신청 안내

세금보고를 위해 '2025년 교무금 및 감사헌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서류 신청을 받습니다.

※ 서류 발급은 **지정된 기간에 일괄** 처리됩니다.

신청 기간: 2월 15일(주일) ~ 3월 1일(주일)

신청 방법: 미사 후 재무 테이블 방문 신청 또는

재정분과 이메일 접수: stfranciskctr.org@gmail.com

※ 서류 신청 시 **영문 성명 / 주소 / 연락처** 필요 ※

서류발급 기간: 3월 8일(주일) - 3월 15일(주일)

### 부활 꽃 봉헌

부활절에 본당에서 사용할 꽃 봉헌하실 분 신청 받습니다.

신청: 646-832-7397 (Sr. 마리루시)

### 공동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동안 매 주일 08시 50분부터 대성당에서 십자가의 길이 봉헌되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날 짜	주관 단체	인원
2/22(일)	울뜨레아	각 단체마다 봉사자 4명 : 십자가 1 주송1, 초2
<b>3/1(일)</b>	<b>요셉회, 성모회</b>	
3/8(일)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3/15(일)	청년회	
3/22(일)	사목회	
3/29(일)	꾸리아	

### 2026년 한인공동체 안전환경교육

일시: 3월 1일(일) 오전 11시

장소: 산다미아노 홀

대상: 교육분과 전체(주일학교 학생, 부모, 교사회)

내용: 뉴욕대교구 안전환경정책 교육

\* 본 교육은 연례교육으로써 뉴욕대교구 안전환경지침을 준수합니다.

### 2026년 사순특강 & 집중 판공성사(3월 15일)

	시간/장소	담당
사순 특강	11:00-12:30 (산다미아노 홀)	김동권(사무엘) 신부 (뉴튼수도원 원장)
점심(김밥) 12:30PM - 1:00PM		
고해 성사	1:00PM-3:00PM (소성당 고해소)	김찬미(가비노) 신부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미주지사 /서울대교구)
		김영민(미카엘) 신부 (마운틴사이드 메디컬센터 원목)

\* 판공성사표와 성사표 제출함이 코리안오피스 데스크에 마련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순시기 내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에 해당됩니다. 성사 보신 분들은 성사표 제출 부탁드립니다.

### 2026년 상반기 영성특강 일정

3/15(주일) 특강	Fr. 김동권 사무엘 (뉴튼 수도원 원장)
5/17(주일) 특강	Fr. 이용호 프란치스코 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 124위 복자 : 복자 최여겸 마티아(1763-1801)



전라도 무장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최여겸 마티아는 자신이 깨달은 신앙의 진리를 이웃에게 전파하는 데 힘써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켰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최 마티아는 체포되어 무장 관아에서 온갖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어떠한 형벌로도 그의 신앙을 꺾을 수 없자 그를 전주 감영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그 곳에서도 최 마티아는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형조에서는 1801년 8월 21일 사형을 선고하였고 고향으로 보내 처형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따라 마티아는 고향인 무장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곳 개갑 장터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8월 2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38세였다. 형조에서 최여겸 마티아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최여겸은 처음 윤지충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웠으며, 이후로는 이준창을 따르면서 교리를 독실히 믿고 익혔다. 또 그 교리로 남들을 속여 미혹시키고, 널리 사람들을 가르침으로써, 자신도 망치고 남들도 망치게 하였으니 만 번 죽여도 아깝지 않다."

성화-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70, 가해, 2026. 02. 22

###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r@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 사순시기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 '가거라' 그리고 '들어라'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 서울대학교장

지난 사순 첫 주일에 '아담과 하와를 향한 뱀의 유혹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유혹받으신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순 시기가 깊어 가는 오늘 사순 제2주일의 말씀의 전례는 아브람을 향해 '가거라.'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부르심은 한 개인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부르심의 첫 마디는 '가거라.'라는 명령입니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거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익숙해 있는 삶의 방식, 곧 내가 안주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벗어던지라는 요청입니다. 사순의 회심도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묵은 자리를 박차고 떠남에서 출발합니다. 길 떠난 아브람의 앞길에 솔한 우여곡절이 전개되듯이, 회심한 우리에게도 알지 못하는 사랑의 모험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길을 떠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성서 원문으로는 '가거라.'라는 첫 명령에 쓰인 동사와 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곧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안주하고 있는 곳, 고향과 친족, 아버지의 집을 떠나 회심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안주하던 묵은 자리를 떠난 영적 길에는 (사랑의) 모험과 (시련의) 고난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그러했듯, 우리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권고하십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행업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만이 우리의 구원이자 '생명과 불멸'(2티모 1,10 참조)이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거룩한 변모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는 이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를 하실 때 '빛나는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려 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창세기에서 아브람에게 하느님께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명하십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라는 신명기의 하느님 말씀처럼, 사실 신앙인의 길은 하느님 말씀을 듣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사순 시기가 깊어가는 이 한 주간, 우리도 안주하고 있던 묵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회심의 길을 떠납시다. 사랑의 모험이 펼쳐질 길을 떠납시다. 아브람이 하느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길을 떠났듯, 우리도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묵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시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빛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그림 에세이

유턴 |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도로표지판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다 끝나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너, 지금 어디를 가느냐?"하고 내게 물어 오십니다. 파견의 이유도 제대로 듣지 않고, 말김의 기도도 건성이었던 행보가 부끄럽고 초라해서, 핸들을 꺾으며 생각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길이 된 나의 주님은 즐지도 않으시는데....(시편 121,4 참조)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02호, 2026년 3월 1일(가혜)